

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1월 4주~2월 1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베트남 1월 경제 동향

- 베트남, '2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최소 10% 이상 달성
 - 베트남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2026년 GDP 목표성장률을 최소 10% 이상으로 확정했으며,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 유지, 수출·소비·투자 확대 등을 정책 과제로 설정
 - '25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8.02%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2년(8.12%)을 제외하면 지난 15년간 가장 높은 수준
 - '25년 전국 20개 성·시가 8%가 넘는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 중 6개 지역(꽝닌, 하이퐁, 닌빈, 푸토, 박닌, 꽝응아이)은 10%를 돌파
- 베트남 인구, 1억200만 명 돌파
 - '25년 베트남 인구 수는 1억230만명으로 동남아 3위, 세계 16위에 오른 것으로 추정
 - 통계국(NSO)에 따르면, 베트남 인구 수는 30여 년간 증가세를 보이며 2059년 1억14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베트남, 4년 연속 한국 3대 교역국 지위 유지
 - 베트남은 중국·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 지위를 4년 연속 유지
 - '25년 양국 교역규모는 USD 945억에 달해 전년 대비 9.0% 증가했으며, 이는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
 - '25년 11월 기준, 한국은 베트남의 2위 수입국이자 4위 수출국
- 베트남, 對미국 6차 상호관세 협상 앞두고 진전 기대
 - 작년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정부 대표단 즉각 협상 돌입해 2월 5일부터 일주일간 미국서 대면 협상 재개 예정

② 베트남 정부 동향 및 정책

- 베트남, 제14차 전당대회 개최 ('26년 1월 19일~23일)
 -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는 5년 단위로 개최되며, 국가 발전 방향과 주요 정책, 지도부 인선을 결정하는 핵심 정치 행사
 - 전당대회에서는 우선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0명(정의원 180명+후보위원 20명)과 당서기장이 결정되며, 이후 당 중앙위가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등 국가 지도부 선출
 - 제14대 중앙위원회에는 제13대 의원 113명 재선, 1명 제13대 후보위원에서 정위원 승격, 86명 신규 선출되었으며, 당서기장은 또 럽 서기장의 연임 확정(임기 5년)

- 베트남, 평화위원회 창립 회원국으로 합류
 - 평화위원회는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전후 복구 및 통치를 포함해 국제 분쟁 해결을 목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 하에 결성된 국제기구로, 트럼프 대통령의 설립 선언 이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참여국들의 현장 승인으로 공식 출범
 - 현재까지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인도네시아, 요르단 등 중동·동남아·중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약 35개국이 창립 회원 또는 참여 의사를 표명

- 베트남 부동산 시장 4대 난제 직면 전망
 - 베트남부동산중개인협회(VARs)는 토지가격 상승, 대출금리 상승, 법·제도 병목, 단기 투자자 위험 확대를 '26년 주요 리스크로 지목
 - 협회는 올해 새로 발표된 토지 가격 체계와 상향 조정된 토지가 보정계수 등이 토지 가격을 끌어올리고, 사업 개발을 복잡하게 만들어 시장 제약 요인이 된다고 하며 부동산 투자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정계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
 - 또한 토지 보상 및 수용 과정상 어려움과 토지법·건설법·부동산사업법 등 관련 개정법의 더딘 시행을 부동산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로 꼽으며 이로 인해 개발업체의 비용 부담 증가와 사업 지연이 초래될 것으로 분석

3 베트남 기타 동향

- 호치민시, 메트로 2호선(벤탄-투티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타코그룹(THACO) 선정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타코그룹이 메트로 2호선 벤탄-투티엠 구간의 타당성조사 보고서와 수송 능력 분석, 연구 계약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승인
 - 호치민 메트로 2호선은 벤탄역부터 북서쪽 꾸찌 신도시 지역까지 이어지는 벤탄-탐르엥 구간과 벤탄-투티엠 구간으로 구성된 총 연장 62km 노선으로, 이 중 벤탄-투티엠 구간은 함응이길을 따라 사이공강을 건너 마이찌토대로를 지나 투티엠역까지 연결
 - 본 사업은 2030년까지 총 187km 도시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세운 호치민시가 우선 투자 대상으로 긴급 지정한 사업 중 하나로, 완공 시 향후 투티엠-롱탄 노선과 연계돼 롱탄공항까지 운행 예정
 - 앞서 타코그룹이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따르면, 벤탄-투티엠 구간은 5.58km 연장(지하역사 6개), 예상 총사업비는 VND 33조이며 사업 방식은 민관협력사업(PPP)-건설·이전(BT) 방식
- 베트남 CT그룹, 호치민-까마우 고속철도 투자 추진
 - 해당 노선은 북남고속철도 종착역인 호치민시 투티엠역에서 출발해 동탑성, 빈롱성, 켄터시, 안장성을 통과해 까마우시 뎃무이역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280km, 설계속도 200~250km/h의 여객·화물 복선 철도
 - CT그룹은 도시 지역 및 교통 인프라 개발, 인공지능(AI)와 드론, 로봇공학 등 첨단 산업을 영위하는 복합기업으로, 이전에도 중국 국영기업과 함께 호치민-켄터 고속철도에 합작 투자에 대한 의사를 정부 당국에 타진한 바 있음
- 베트남, 원전 1호기 러시아와 개발 협력 큰 틀 합의
 - 베트남은 여러 차례 협상 끝에 러시아와 닌투언 원전 1호기 건설 협력에 관한 전체 기본 협정 초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
 -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은 팜 민 쩌 총리와 통화에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닌투언 원전 1호기 건설에 협력하겠다고 약속

□ 일반 프로젝트 동향

① (베트남) 호치민시 까이멩하 복합항 건설 승인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 (사 업 비) VND 50.8조 (USD 19.5억)
- (사업내용) 총 면적 351.2ha 대규모 컨테이너 종합항만
- (추진계획) '28.4Q 1단계 사업 완료 및 개항 / '45년 전체 사업 완료 예정

- (주요사항) 옛 바리아붕따우성에 들어설 까이멩하 컨테이너 복합항은 해상 및 육상 운송, 선박운항업자 또는 소유자 대행사 (Shipping Agent), 컨테이너선 수리 등을 포함한 국제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투자자로는 Geleximco Group과 국제 무역운송공사(ITC Corp), 베트남투자청(SCIC) 등 3개사가 총사업비의 15%를 출자
 - 총 길이 7.5km의 항만 시스템 구축이 포함돼 완공 시 연안 및 내륙 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중형 선박과 바지선은 물론, 최대 25만 DWT급(2.4만TEU급) 컨테이너선 접안 가능하며, 항만에는 121ha가 넘는 선박 정박 구역 조성
 - 호치민시는 까이멩하 복합항이 관문 항만 및 국제 환적 허브로서 장거리 해상 항로의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 상하역을 지원해 남부 주요 경제권역의 발전은 물론 전국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로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② (베트남) 까마우시 호아빈 풍력발전소 5.1 프로젝트 건설 추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 (사 업 비) VND 2.8조 (USD 1.8억)
- (사업내용) 32ha부지에 5MW 풍력 터빈 16기 건설(총 발전용량 80MW)
- (추진계획) 미정

- (주요사항) 까마우성 인민위원회는 호아빈 풍력 발전소 사업의 입찰 공고 예정